

세계 홀린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 광주도 홀린다

광주시향과 베토벤 '황제' 협연...10월6일 전남대 민주마루
8월18일 티켓팅, 회관 회원 선예매...10월8일 통영공연 음반 제작
반 클라이번 콩쿠르 영상 500만회 육박...2년전 데뷔 앨범도 인기

임윤찬 신드롬에 광주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세계적인 권위의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해 화제를 모은 임윤찬이 오는 10월 6일(오후 7시 30분)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 연주를 펼친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후 전 세계에서 공연 의뢰와 음반 제작 요청이 쇄도하는 그이기에 이번 공연 소식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의 클래식 애호가들 사이의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0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정명훈과의 협연무대가 이미 매진될 정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광주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향과의 협연은 당초 9월 7일로 예정되었으나 콩쿠르 우승자 신분으로 치러야 하는 투어공연(미국 텍사스)과 일정이 맞물려 연주 날짜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연주회 장소도 당초 예정했던 빛고을시민문화관이 대신 음향시설이 훨씬 좋은 전남대 민주마루(916석)로 변경됐고, 레퍼토리 역시 쇼스타코비치 '피아노협주곡 2번'에서 베토벤 '교향곡 5번 황제'로 바뀌었다.

공연은 오는 10월8일 오후 5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리며 공연 실황을 녹음, 음반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임윤찬 신드롬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 연주 유튜브 영상은 '라흐마니노프 3번' 연주 영상 가운데 가장 많이 재생된 영상으로 기록됐다. 지난 6월 20일 반 클라이번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13일 현재 조회수 487만 회를 넘겨,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 호로비츠의 지난 1978년 뉴욕 에버리 피셔홀에서 연주 영상 조회수(417만)를 넘어섰다.



임윤찬 데뷔 앨범

뿐만 아니라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208만회),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2번' (151만회) 리스트 '조절기교 연습곡' (166만회) 등 그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 연주 영상은 1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임윤찬과 광주시향의 협연 동영상도 당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광주시향과의 협연에서 그는 이번 콩쿠르에서 마린 엘름스의 지휘로 포트워스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연주해 화제가 됐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조회수 15만 회를 넘겼다.

임윤찬과의 협연 동영상을 관련한 클래식팬들로부터 광주시향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피아니스트가 긴장하는 경연이 아닌, 일반 연주회다 보니 더 편안한 연주를 선보인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문화도시 시립교향악단 답게 대단하다", "광주시향과의 협연이 결선 무대 보다 좋다", "광주시향과의 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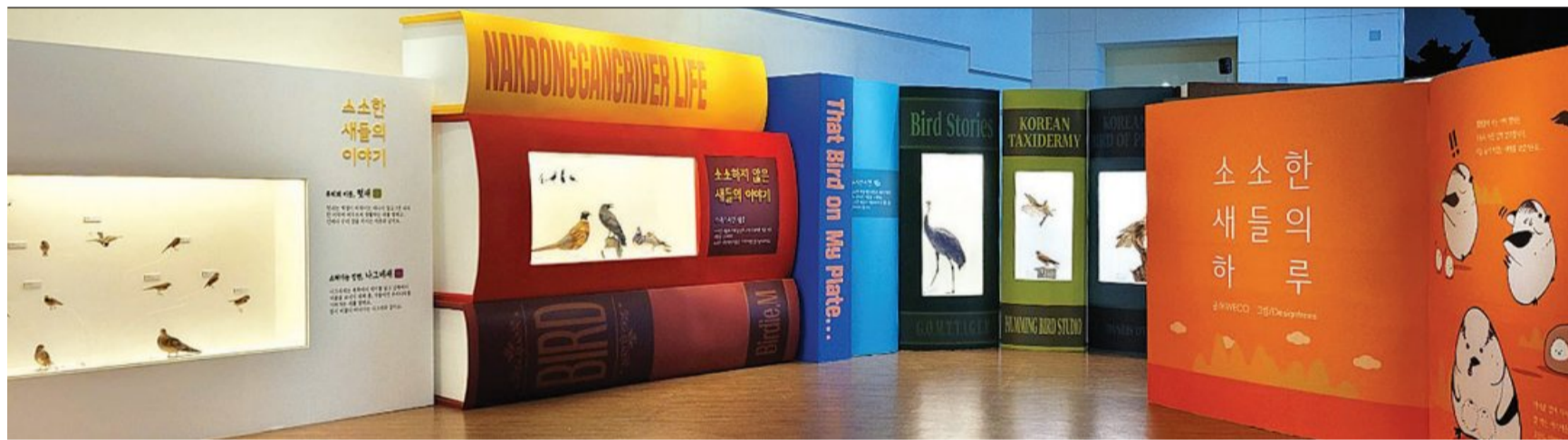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광주시향과의 협연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 중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광주시립교향악단 제공)

항상적이다"는 등 칭찬이 많다. 임윤찬 신드롬은 음악계를 넘어 출판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윤찬의 데뷔 음반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VOL.3 임윤찬' (아울로스)은 지난 2020년 발매된 앨범임에도 콩쿠르 우승 이후 클래식 앨범 분야 1-2위에 올라왔다. 음반에는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14번 월광'과 리스트의 '순례의 해 두번 째 이야기 이탈리아' 등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임윤찬이 '단테 소나타' 연주를 위해 여러 출판사의 번역본을 모두 구해서 읽었다는 도서 단테의 '신곡'의 인기도 무섭다. 고전 도서관 '신곡'이 전체 도서 베스트셀러 50위권 내에 올라왔다. 온라인 서점에서 임윤찬을 검색하면 음반 앨범과 단테의 신곡이 함께 조회될 정도다. /김민서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미래혁신위원회 개최 "신축전시관을 광주 랜드마크로"

광주시 속원사업이었던 비엔날레전시관 신축과 관련, 신축 비엔날레전시관은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12일 광주비엔날레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운영 방안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재단은 지금까지 활동으로 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실 3부 체제로의 조직 정비, 기지재단 100만 달러 후원을 통한 '광주비엔날레 박람회 예술상' 제정,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 및 주제발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베니스 해외홍보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축 전시관 구상과 관련해 건축가, 미술인, 시민 등 각계각층이 집단지성을 이뤄야 하며, 건물 외관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도 동시에 준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 기존 전시관, 사무동인 제문원 활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광주비엔날레 신축 전시관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먹거리 등 도시 문화예술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시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밖에 행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 광주비엔날레 주제전과 연계한 지역 프로젝트의 가동, 재단 조직의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소한 작은 새들의 이야기' 들여보세요

영산강보관리단·영산강문화관, 8월까지 조류 표본 전시

'새의 이야기를 듣다.' 우리와 함께 해온 '작은 새'의 표본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박종덕)·KWECO 영산강문화관(관장 김창호)은 '소소한 새들의 이야기' 조류 표본 전시를 오는 8월 31일까지 문화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사진) 이번 전시는 문화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으로부터 식물 표본과 기본 자료를 제공받아 기획한 것으로 전국의 강문화관에서 순회한다.

작은새들의 특별전 '소소한 새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소형 새들에 초점을 맞춘 기획이다. 전시에서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새와 텃새 11종,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겨울을 보내고 떠나는 철새 7종, 소소하지 않은 새 8종 등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조류 표본을 만날 수 있다. 연계 전시로 영산강 새들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 에세이전도 준비했다. '소소한 영산강 산책, 특별한 새들과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토 에세이전은 영

산강문화관에서 환경강사로 활동하는 진혜숙(달샘) 씨가 영산강을 산책하며 만났던 특별한 새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기획이다. 진 강사는 영산강의 지류, 계절별로 만날 수 있는 새들을 글과 사진으로 풍부하게 풀어냈다. '광주호의 여름 손님들 소식을 듣다', '우리청과 슬픈 소식', '봄의 꽃누리 강을 누리는 원앙'을 통해 영산강 시민 용소의 큰유리새 이야기부터 겨울철 영산강변의 큰고니,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 목포 앞바다 검은머리물떼새 이야기까지 총 11가지 주제를 만난다. 그밖에 전시연계 활동지를 작성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환경교육사의 특별 전시 안내도 운영한다. 문의 영산강문화관 학예실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이 작 '졸정소경'

'젠 체 하지 않는' 소소한 이야기와 울림

유진수 시인 첫 시집 '바로 가는 이야기는 없다네' 발간

일상과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시인의 시는 공허하지 않다. 현란한 수사나 뜻을 알 수 없는 관념을 풀어놓지도 않는다. 시는 시일뿐이고, 그 시의 자리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기 때문이다. 광주 출신 유진수 시인의 첫 시집 '바로 가는 이야기는 없다네' (문학들)는 주변의 풍경과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곱씹게 풀어놓는다. '젠 체 하지 않는' 시가 지닌 특유의 정겨움은 편안함을 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페이스와 해학이 자리한다. 무한정 가뭄이만은 않아, 읽고 나면 무릎을 치게 하는

날카로움도 배어 있다. "물랐는데/ 양말을 개며 알았다// 우린 참 다르구나 // 동글동글 말아서 간간이/ 납작납작 접어서 켜켜이 // 목 늘어나니 말자는 너와/ 아니다 아니다/ 짝 맞으니 접자는 내가// 사계절 늘 푸른 바다가 있는/ 서랍장 안에서 물결친다// 십수 년 물랐는데/ 양말을 개며 알았다// 서랍에는 밀푼 떡과 설탕이/ 함께 산다는 것을" 위 시 '양말을 개면서'는 한뼘쯤 경험해봄직한 일을 평이한 언어와 리듬감 있는 운율로 풀어낸 작품이다. 사소하면서도 익숙한 장면을 시로 형상화한 솜씨가 예



사롭지 않다. 양말을 개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모든 일로 확장된다. 그러나 언급한대로 시인의 작품이 마냥 쉽거나 단순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의 표제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바로 가는 이야기는 없다는 것을, 시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인생이든, 세상이든, 이 치든 직행만이 아닌 완행도 있다는 것을 아프게 그려낸다. 김규성 시인은 해설에서 "유진수는 늘 곁에 있는 것도 새롭게 보고 가까이 있었어도 그냥 지나쳐온 사물과 현상을 세삼 돌켜 보며 그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와 지혜를 발굴해 되새긴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중서화교류 30년을 돌아보다'

은암미술관, 15일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전 '유대와 동행' 전과 연계한 세미나가 열린다. 15일 오후 4시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선옥 의재미술관 관장과 장북동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가 각각 '한중서화교류 30년을 돌아보다', '추사 김정희의 중국 문화 인식 - 청대 사상가들과 문화교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혁경 은암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으며 채종기(은암미술관 관장), 조성숙(동강대 강교수·미술학 박사)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